

2 월 23 일 2025 년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손정임 집사
-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 설교 겸손의 마음 (빌 2: 1-11) 이진수 목사
- 결단찬양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다함께
-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912 교회 홈페이지: hkb.church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1-6)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 받았던 다윗은 시편 23 편에서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암이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앗아가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부족병'입니다. 부족병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함이 없이 부족함을 느끼는 증세입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을 채우기 위함을 넘어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한다면 그것은 욕심이 됩니다. 욕심이 많은 경우 더 큰 부족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자족과 만족입니다. 만족이란 마음에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함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만족한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3:5 절에 "우리가 무슨 일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알려 주십니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사실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양을 돌보는 일을 밤낮으로 홀로 감당했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사울 왕의 시기와 미움으로 10 여년간을 광야로 도망쳐 숨어 지내야했습니다. 후에 자녀들이 불화, 가정의 불화로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결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라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삶에 닥치는 상황만을 보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그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한 이겨낼 능력과 보호하심을 주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모자람도 필요하고, 실패도 필요하고, 징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속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을 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소식

1. **환영** -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2. **비전 트립** - 지난 주 한국 소망 공동체 사역으로 한국 시설 고등학생 3 명이 미주 비전트립을 잘 마쳤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 **월례회** - 오늘 예배 후에 각 전도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4. **성찬식** - 3월 2일 주일 예배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5. **부장 모임** - 3월 2일 주일 예배 후에 부장모임이 있습니다.
6. **운영 위원회** - 3월 9일 주일에 운영 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7. **교회 주소록** - 2025년 업데이트 된 주소록이 헌금함 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행사 및 모임

2월	성찬식	2월 2일 (주일)
2월	비전트립	2월 19-20
2월	각기관 월례회	2월 23일 (주일)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2/23	3/02	3/09	3/16
대표기도	손정임	차은희	심영민	유경애
헌화성도	정명희	최수덕	이강선	정병철
봉사당번	각기관 월례회	믿음구역	믿음구역	소망구역

예배출석자 및 헌금

지난주 예배 출석	
지난주 헌금 통계	

후원 선교지 안내

구역	구역인도자 구역장	연락처	선교사
사랑구역	유경주	510-634-9374	정주환 (소망공동체)
	유경애	925-719-3673	장철호 (미얀마)
믿음구역	심영민	415-205-2631	박완주 (헝가리집시)
	손정임	808-277-1072	K 선교사 (Malaysia)
소망구역	조현숙	510-396-6952	김정림 (탄자니아)
	한영미	510-410-8718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확신의 삶	7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설경 통독방	52 주

소망 비전 트립을 마치고

지난 주 수요일과 목요일 이틀간 한국 시설에서 온 3 명의 학생들과 인솔해 오신 선생님을 비전 트립으로 여러곳을 견학시켜 드렸습니다. 수요일은 샌프란시스코에 여러 곳 (유니온 스퀘어 Down Town, 리전 아너 Region of Honor 박물관, 샌프란시스코 전체를 볼 수 있는 트윈 피크 Twin Peak,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가장 유럽풍을 느낄 수 있는 건축물인 미술 궁전 Palace of Fine Art,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도시의 명물이라고 하는 케이블 카를 함께 타고 마지막 정류장에 있는 유명한 기라델리 초코렛 가게를 들리고 목요일에는 샌프란시스코 아웃렛 샤피몰과 버클리 대학 방문, 그리고 버클리 도시를 구경시켰습니다.

소망 나눔 시설 사역을 감당하는 정주환 목사님을 통하여 한국 김천, 나주, 창원 시설에서 지내는 학생들이 미국 비전 트립으로 와서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세 교회의 후원을 통하여 10 일간을 보내는데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 하는 모습을 곁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더 행복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벌써 4 년째 이 사역에 동참되어서 섬겨 주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잘 수 있도록 집을 제공해 주시고 저녁 식사를 정성스럽게 섬겨 주시는 유 집사님, 그리고 아이들을 생각하며 여행 중에 식사와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후원금을 아낌없이 주신 여러 성도님들, 그리고 이번에도 아이들이 좋아할 선물을 고심하여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전해 주신 한 형제님 부부, 그리고 많이 걸어야 하고 차를 타고 다녀야 하는 일정을 함께 해 주신 선교 부장님,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작년에 버클리 대학에서 공부하는 친교 부장님의 딸인 예린이가 버클리 대학을 언니로서 견학시켜 주며 함께 해 주었고, 일하시는 가게에서 직접 커피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마시게 해서 좋은 경험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기도함 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겨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부모의 사랑과 손길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마음에 남모를 아픔과 채워지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축복을 먼저 받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하여 조금이나마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 줌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저에게 전해준 한 학생의 편지의 내용을 나눕니다. "목사님, 짧은 이틀이었지만 꼭차고 힘찬 이틀을 함께 보내 너무 좋았어요. 저희 때문에 힘드셨다면 죄송하지만 저는 좋은 기억이 남겨진 것 같아요. 목사님께 들은 그 말,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이유를 찾은 것 같아요. 너무나도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잊지 못할 기억도 만들어 주셔서 감사했고 기회가 된다면 꼭 다시 뵙고 싶어요. 목사님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000 드림"

저에게 남긴 편지지만 제가 아닌 섬겨 주신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더욱 넘치는 교회로 쓰임 받음이 기쁘고 더욱 그 사랑과 섬김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축복된 성도와 교회되기 원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주일대예배 <i>Sunday Main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본당 <i>Main Sactuary</i>
어린이예배 <i>Sunday Children's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유치부실 <i>Children's Room</i>
영어예배 <i>Sunday English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영어부예배실 <i>English Service Room</i>
주일성경공부 <i>Sunday School</i>	주일오후 12 시 <i>12:00 P.M.</i>	유년부실 <i>Group Class Room</i>
새벽기도회 <i>Morning Prayer Meeting</i>	매일 화-토 6 시 <i>Daily T-Sat 6 a.m.</i>	본당 <i>Main Sactuary</i>
구역모임 <i>Local House Meeting</i>	매 월 <i>Monthly</i>	구역별 각가정 <i>Local church member's home</i>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담임목사:이진수 <i>Sr. Pastor: Timothy Y.</i>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Ministry: Erik & annie Komoto	951-295-4769	Erik.Komoto@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i>Children's Ministry: Joy Song</i>	510-415-1696	Ejoysong@gmail.com

교회약도 *Church Map*

